

# 강진원 49.3% 오차범위 밖 선두 김신 22.8% 1위…신의준 추격 차영수 26.0%…김보미 11.4% 2.3%p 차 혼전…상위권도 촘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전남 강진군수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강진원 현 군수가 5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수 선거는 최근 민주당 당원권 정지 정계를 받은 강진원 군수의 무소속 출마 등 거취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강진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서 ±4.4%p) 결과, 강진원 현 군수는 49.3%를 기록,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차영수 현 전남도의원은 26.0%로 2위를 기록했으며,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11.4%,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9.8%, 기타 후보 1.3%로 조사됐다. '없음·모름' 비율은 2.3%였다.

후보들 중 강 군수는 연령·지역·정당성 향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차 도의원은 일부 연령대와 지역에서 선전하며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강 군수가 1위를 달렸으며, 70대+ (55.3%)와 60대 (53.6%) 이상에서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40대에서 49.0%, 50대에서는 49.6% 선택을 받았다.

차 도의원은 18/20대에서 28.4%를, 30대에서 37.8%로 선택을 받는 등 청년 층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미 전 군의회 의장은 18/20대에서 39.3%, 30대에서 20%의 선택을 받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한자릿수를 얻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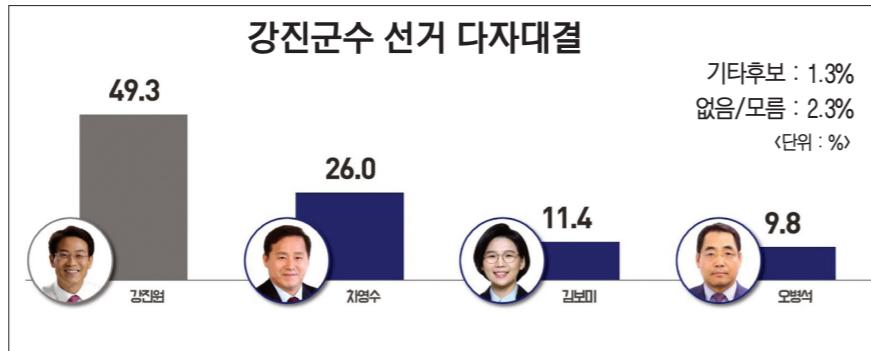
지역별로 강 군수가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강진읍과 도암·신전·성전면으로 구성된 '가 선거구'에서 49.9%를, 군동·칠량·대구·마량·작천·병영·읍천면 등으로 구성된 '나 선거구'에서도 48.3%의 지지를 받았다.

차 도의원은 '나 선거구'에서 24.8%, '가 선거구'에서 20.6%의 선택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가 선거구'에서 29.6%, '나 선거구'에서 18.3%의 지지를 받아, 2위인 차 의원을 추격하는 모습이다.

정파별로 강 군수는 민주당 지지율에서 46.5%가 차지하는 등 모든 정파에서 50% 안팎의 지지율로 경쟁 후보군을 앞섰다. 차 도의원은 민주당 지지율에서 30.3%의 지지를 받았으며, 김 전 군의회 의장은 11.6%의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당원권 정지' 현 군수 거취 선택이 '최대 변수' 민주후보는 차영수·김보미…지지층 표심 관건

차영수 도의원이 31.8%를 받아 김보미 전 군의회 의장 (18.0%)을 13.8%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민주당 당원권 정지 정계를 받은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4.8% 지지를 받았다. 기타후보 19.6%, '없음·모름' 비율은 15.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영수 (36.8%), 김보미 (18.4%), 오병석 (13.4%) 순으로 조사됐으며, 차 도의원이 김 전 군의회 의장은 18.4%p 앞서며 격차를 더 벌렸다. 연령·지역별에서도 차 도의원은 30대 (37.8%)와 40대 (33.3%), 50대 (35.9%), 60대 (32.5%), 70대+ (29.0%) 등과 가선거구 (33.3%), 나선거구 (29.6%) 등에서 30% 안팎의 비교적 고른 지지를 얻었다.

김 전 군의회 의장은 18/20대 (40.9%)에서 40%대의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으며, 나선거구에서 22.7%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진지역은 민주당 당원권 정지 정계를 받은 강 군수의 거취 선택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정계를 받은 오병석 차관보의 선택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강 군수의 재심 청구 내용을 일부 받아들이 당원 자격 정지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당원 모집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당구를 위반해 중징계를 받은 강 군수는 재심에도 불구하고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52@

김신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6·3 지방선거 완도군수 선거 다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초반 판세 주도권을 잡았다. 다만 상위권 인사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 구도는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남 완도군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완도군수 다자대결에서 김신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2.8%의 지지를로 선두에 올랐다.

신의준 현 전남도의원이 20.5%로 오차범위 (±4.4%p) 내에서 김부의장을 추격했고, 지영배 전 행정자치부 서기관 16.4%, 이철 현 전남도의회 부의장 15.3%, 우홍섭 전 진도군 부군수 14.1% 순으로 나타났다.

김세국 전 전남도정 감사관과 허공희 협원도의원, 김재현 현 김대중재단 완도군 지회장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상위 5명의 지지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며, 특정 인사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도라는 점이 특징으로 풀렸다. 선두를 기록한 김신 부의장과 2위 신의준 도의원 간 격차는 2.3%p에 불과해, 향후 선거 국면에서 충분히 순위 변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중위권에 형성된 지영배 전 서기관, 이철 부의장, 우홍섭 전 부군수 역시 1~2%

p 내외 차이를 보이며 촘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완도군수 선거가 초반부터 '혼전' 양상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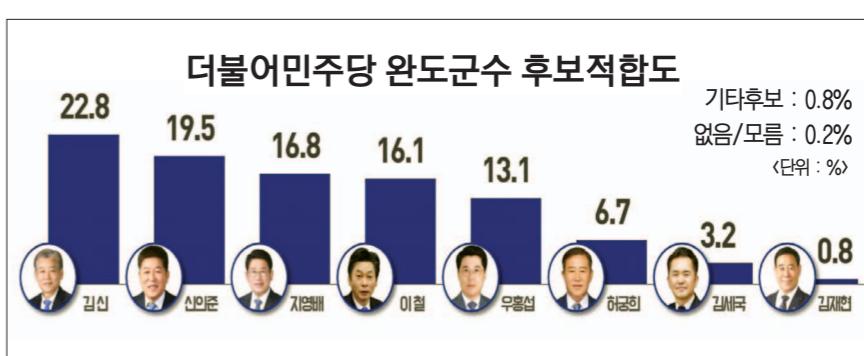
행정 경력은 앞세운 인사와 지방의회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온 인사, 종양 부처와 지역 행정을 두루 거친 인사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세대 간 지지 흐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60대에서는 김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30%를 웃도는

지지율을 얻으며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정책 경험과 당내 활동 이력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에서 안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김신 부의장과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혼전을 벌였다. 지역 정치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신 도의원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지영배 16.4%, 이철 15.3%, 우홍섭 14.1% 등 중위권 접전 지역별·세대별로 선택 갈려…선거 막판 각종 변수 가능성

더욱 뚜렷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특정 인사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지영배 전 행정자치부 서기관과 이철 전 남도의회 부의장, 우홍섭 전 진도군 부군수의 지지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순위로 나타났다.

김세국 전 전남도정 감사관과 허공희 협원도의원, 김재현 현 김대중재단 완도군 지회장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상위 5명의 지지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며, 특정 인사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도라는 점이 특징으로 풀렸다.

중위권에 형성된 지영배 전 서기관, 이철 부의장, 우홍섭 전 부군수 역시 1~2%

p 내외 차이를 보이며 촘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완도군수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행정 운영 능력과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 판세는 조금씩 달랐다.

가선거구(완도읍·노회읍·소안·보길면)와 다선거구(군위·신자·악산·청간면)에서는 김신 부의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보이며 중심지 기반을 다졌다.

나선거구(금일읍·고금·금당·생일면)에서는 김보미 도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혼전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도군 전역에서 특정 인사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권역별로 서로 다른 선호 구도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각 인사의 지역·민족·행보와 조직력, 현장 활동 여부가 실제 득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김신 부의장과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혼전을 벌였다. 지역 정치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신 도의원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정·장년층에서는 다자 구도의 특성이 22.8%의 지지를 기록했고, 신의준 전남

도의원 (19.5%)과 지영배 전 서기관 (16.8%), 이철 전 남도의회 부의장 (16.1%), 우홍섭 전 진도군 부군수 (13.2%), 허공희 완도군의원 (6.7%), 김세국 전 전남도정 감사관 (3.2%), 김재현 현 김대중재단 완도군 지회장 (0.8%)이 그 뒤를 이었다.

완도군은 부동층이 전체 1.0% (기타 : 0.8%, 무응답 : 0.2%), 민주당 지지층 0.5% (기타 : 0.3%, 무응답 : 0.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군 내에서도 상위 인사 간 격차가 크지 않아, 향후 경선 국면 역시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처럼 완도군수 선거는 다자대결과 당내 인사 경쟁 모두에서 뚜렷한 '1강' 없이 혼전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경험형 인사와 지방의회 활동 중심 인사, 지역 사회 기반 인사들이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선거 막판까지 표심이 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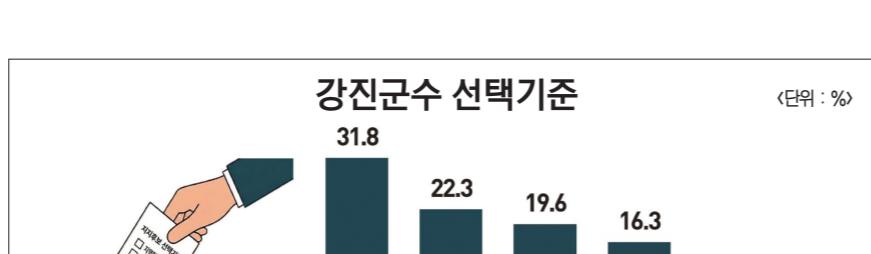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능번호를 활용한 100%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 종양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인사군 조사에서 김 부의장은 22.8%의 지지를 기록했고, 신의준 전남

원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강진군민 '지역현안 해결 능력' 가장 중요

응답자 31.8%…연령별 차이 소속정당 5.8% 상대적 낮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강진 군민들은 군수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지역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부에 의뢰해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강진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서 ±4.4%p) 결과, '지역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할 때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3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리더십 역량 (22.3%),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 (19.6%), 도덕성·철철성 (16.3%), 소속 정당 (5.8%) 등 순이었

다. 기타·모름은 4.0%다.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선택한 김보미 전 군의원 지지율은 38.6%로 가장 높았고, 차영수 지지율은 31.4%, 강진원 지지율은 32.0%. 기타 인물 지지율은 34.8%, 없음·모름 42.5%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리더십 역량'은 40대 (29.4%)와 60대 (27.7%)에서 비교적 많았고, 진보당 지지율은 47.6%와 개혁신당 지지율은 30.1%. 무당층 (32.2%)에서 높았고, 진보당 지지율은 47.6%와 개혁신당 지지율은 30.1%. 무당층 (32.2%)에서 높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